

‘환골탈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PO 진출 노린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새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개막전에서 통합 2연패 팀인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맞붙는다.

지난 2010년 창단한 광주도시공사는 2019년 오세일 감독 부임 이후 다크호스로 떠오른 팀이다.

2021년 정규리그 10승 달성과 4위 도약에 성공했고, 2022년에는 리그 2위 안착과 함께 창단 이후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에 성공했다.

2023년 역시 리그 2위 달성과 함께 플레이오프 3위를 기록하는 등 활약할만한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2024년 리그 7위로 4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뒤, 지난해에도 리그 6위로 두 시즌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오 감독은 지난 시즌 고전한



이유로 공격력 부족과 주축 선수 부상은 물론이다.

그는 “골키퍼가 바뀐데다 공격력이 떨어지다 보니 1, 2골 차로 패한 경기가 많았다”며 “선수들이 어려다 보니 큰 경기에 대한 경험에 부족했고, 중요할 때 스트라이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단과 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며 팀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공격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했다. 2년 연속 좌절했던 포스트시즌 진출 이루겠다는 각오다.

광주도시공사는 송혜수·이아현·김수민이 은퇴하고, 기존 주장 서아루 역시 부상으로 아시안게임에 맞춰 복귀할 예정이

뿐만 아니라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윤별과 박소망(이상 조대여고), 최연아(정읍고) 등 3명의 선수들을 지명했다.

1라운드 4순위로 지명된 윤별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준우승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빠른 판단력과 민첩한 플레이를 강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6라운드에서 지명된 박소망 또한 경기 운영의 시야가 넓고 빠른 발이 장점이며, 윤별과 함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을 뿐이라는 평이다.

오 감독은 “구단과 체육회가 이번 시즌 포스트시즌 진출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에 경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해 공격력 보강에 힘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수단 절반이 바뀌면서 새로운 선수들과의 합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숙제다. 이에 오 감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의 손발이 맞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 감독은 올 시즌 팀의 키 플레이어로

이민지를 꼽았다.

그는 “전체적인 흐름이 골키퍼가 35% 이상 방어율이 안 나오면 승률이 안 나오는 것 같다”며 골키퍼의 활약이 팀 성적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시즌 합류한 이민지가 한 시즌을 보내며 팀에 적응했고, 이동명 골키퍼 코치까지 영입한 만큼 골키퍼의 분발을 기대하고 있다.

두 시즌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했던 광주도시공사의 올 시즌 목표는 명확하다. 구단과 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만큼 포스트시즌 진출은 당면 과제다.

오 감독은 “팀이 새로워지는 만큼 분위기도 새로워지면 좋겠다”며 “지난 3~4년 동안 부상 때문에 고생했으니 부상 없는 시즌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팬들에게는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선수들도 더 힘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내일 H리그 개막전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 맞대결

2년 연속 하위권…주장·선수단 교체 등 대규모 조정

오세일 감독 “베테랑 영입…신구 조화 앞세워 승리”

특히 믿었던 플레이메이커 송혜수가 시즌 중반 부상으로 이탈한 것이 팀에 큰 타격이었다. 치고 올라가려는 찰나 베테랑이 빠지는 바람에 공격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결국 순위 싸움에 밀렸다.

결국 광주도시공사는 올해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을 단행했다. 오세일 감독은 구

다. 여기에 정현희가 이적하는 등 6명의 선수를 교체하며 사실상 팀의 절반 가까이를 새롭게 구성했다.

새로운 주장 원장은 김금정이 차계 됐고, 리그에서 10년 이상 활약한 이효진과 최수지, 합지선 등 베테랑들을 영입하며 신구의 조화를 꾀했다.

‘세계 최강’ 배드민턴 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8강 진출

16강전서 日 오쿠하라 노조미 2-0으로 제압

덴마크 키에르스펠트와 4강 티켓 놓고 격돌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새해 첫 국제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 우승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16강전에서 오쿠하라 노조미(일본·세계랭킹 30위)를 2-0(21-17 21-7)으로 제압했다.

당초 안세영

은 8강에서 강적인 한웨(중국·세계랭킹 5위)와 만날 가능성이 높았으나, 그가 16강에서 기권하면서 리네 화이마르크 키에르스펠트(덴마크·세계랭킹 26위)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됐다.

지난 2024년과 2025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안세영이 이번에도 정상에 오르다면 대회 3연패 금지탑을 쌓게 된다.

앞서 32강 경기에서 캐나다의 미셸 리를 상대로 1시간 15분간의 혈투 끝에

역전승한 안세영은 이날 16강전에서는 완벽한 컨디션을 선보였다.

1게임 초반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주특기인 대각 공격으로 차분하게 점수를 쌓으며 곧바로 주도권을 되찾았다. 이후 13-15로 밀리던 상황에서 3연속 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또다시 연속 득점을 올리며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개임에서 안세영은 세계랭킹 1위의 압도적인 모습을 뽐냈다.

첫 득점을 내준 뒤 곧바로 11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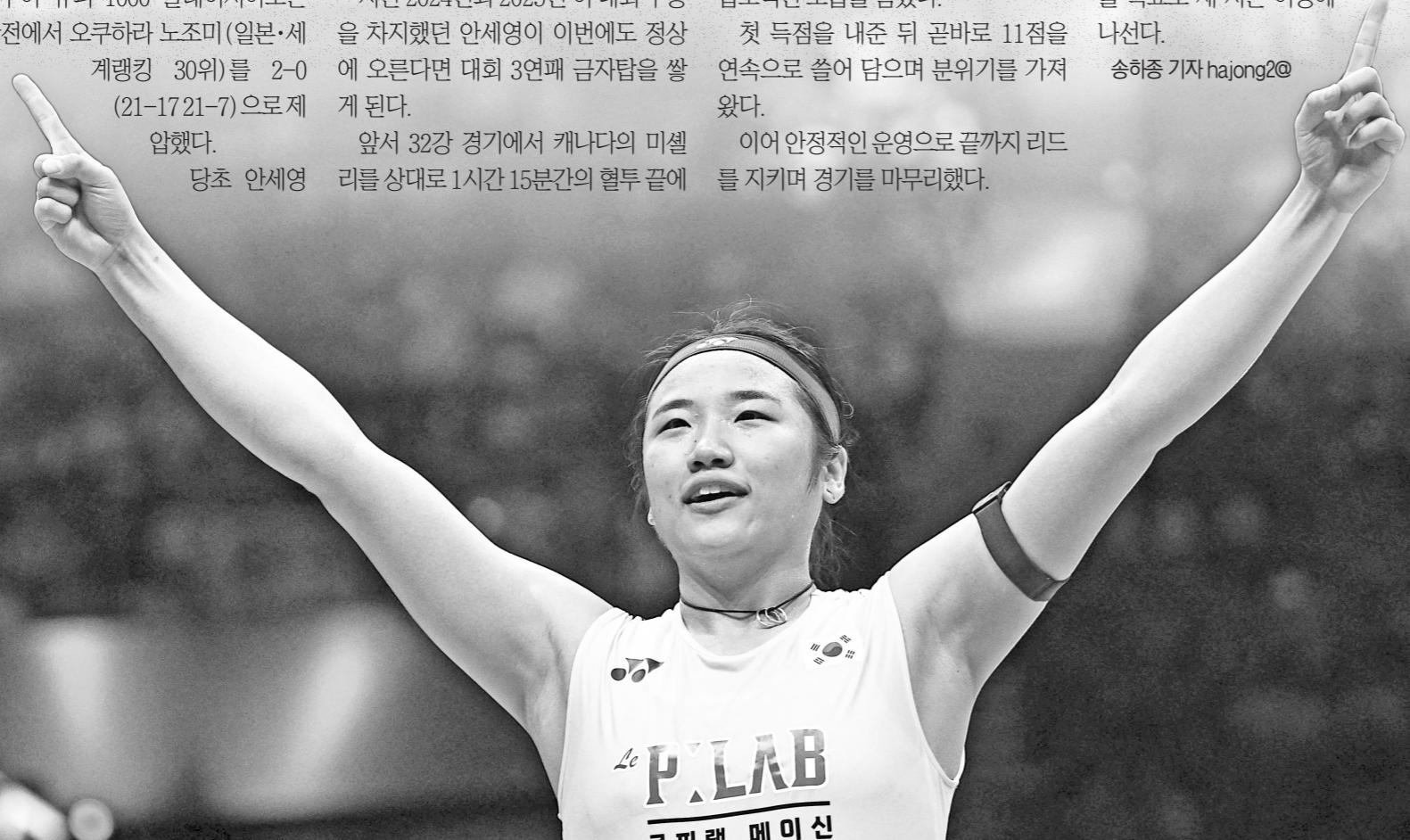
안세영은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 스타트리그(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100만 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여자 배드민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번 말레이시아오픈은 13일 일 안도오픈까지 출전을 확정한 안세영은 자신이 세운 대기록 경신을 목표로 새 시즌 여정에 나선다.

송하종 기자 hajong2@

왔다가

이어 안정적인 운동으로 끝까지 리드를 지키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동계체전 광주 선수단, 불모지 한계 딛고 도약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동계 스포츠 불모지의 한계를 딛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광주 소속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날 염주빙상장을 찾아 동계체전 사전경기에 참가할 빙상 종목 선수 및 지도자 등 17명의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

이번 훈련장 방문 격려는 하계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동계 종목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광주에는 빙상장이 1곳뿐으로 빙

상, 아이스하키, 컬링 선수들과 일반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훈련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부족한 훈련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빙상 종목의 경우 육성학교가 상무초 1곳에 불과하고, 티 종목과 달리 훈련을 위해 빙상장까지 이동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엘리트 선수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체육회는 이번 훈련장 격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유망주 발굴 및 선수수급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육성

시체육회는 최근 동계 스포츠 불모지의 한계를 딛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광주 소속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

들이 대전하고 고맙다”며 “광주 대표선수라는 자긍심을 갖고 선전을 펼쳐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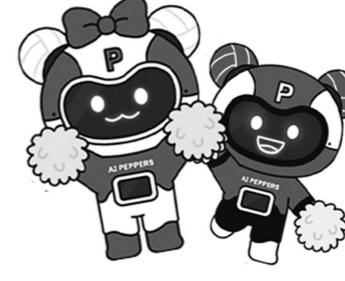
AI페퍼스, 오늘 흥국생명전서 스폰서데이

이디야커피 쿠폰 등 풍성한 경품 이벤트 마련

여자프로배구단 페퍼제축은행 AI페퍼스가 9일 페퍼스타디움(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스폰서데이를 진행한다

고 8일 밝혔다. 이번 스폰서데이는 2025~2026 시즌 동안 AI페퍼스와 함께한 스폰서들이 참여해 다양한 이벤트 물품을 제공하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 중에는 관중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즉석 경품이 제공되며, 경기 종료 후에도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이 증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폰서데이에서 이디야커피는 카페라떼 지류쿠폰 200매와 이디야커피 150개를 준비했으며, 광주수안병원은 건강검진권 2매를 제공한다. 자운에서는 콜



렌의료온열매트와 콜렌펫제품을 각 1개씩 증정한다.

세인트컷은 PPF시공권 50만원 상품권 1매와 텁블러 12개를, 하이트는 하이트선물파 3개를

준비했다. 코오롱모터스와 MINI는 보조배터리와 레디백을 각 2개씩 제공한다. 이외에도 꽃마름의 샤브샤브 5만원 식사권 3매, 딥아이스 아이스걸 30개, 봄비야삼푸 20개가 경품으로 마련됐다.

AI페퍼스 관계자는 “스폰서데이를 통해 2025~2026 시즌을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사와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자 한다”며 “많은 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미국서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철수 잇따라

KIA, 일본 외판섬에서 1차 캠프

한울·물가·기후 등 문제로 외면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6 시즌 대비 스프링캠프를 국외에 차린다.

각 구단은 이달 말 미국, 일본, 호주, 대만으로 출국해 1차 스프링캠프 훈련을 시작한다. 올해 가장 많은 구단이 선택한 1차 전지훈련지는 미국 본토와 호주다. 각

각 3개 구단이 택했다.

LG트윈스를 포함해 3개 구단이 미국 본토에서 훈련한다. LG(스코트데일)와 NC다이노스(토론토)는 전통의 전지훈련지인 애리조나주에서, SSC팬더스는 플로리다 비로비치에서 훈련될 예정이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인기는 떨어지는 추세다. 2023년 미국 본토를 1차 훈련지로 택한 팀은 7개였고 2차 훈련까지 한 팀은 5개였으나 2024년엔 미국 본토에서 1차 훈련을 한 팀이 4개, 2차 훈련을 한 팀은 2개로 줄었다. 2025년엔 미국 본토에서 5개 팀이 1차 훈련을 했고 2차 훈련에선 모든 팀이 철수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훈련한 KIA타이거즈와 기음히어로즈는 다른 지역을 택했다.

미국을 외면하는 이유는 많다. 최근 이상 기후 현상으로 미국 서부지역의 날씨

가 쌀쌀해진 데다 치솟은 환율과 물가로 비용이 커졌다. 시차 적응과 이동 거리, 비자 문제 등도 각 구단이 미국에서 철수하는 배경이다.

KIA는 유일하게 일본을 1차 캠프지로 정했다. KIA는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바인에서 훈련했으나 올해엔 일본 가고시마현의 외딴섬인 아마미오시마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펼칠 계획이다.

KIA는 2024 시즌 통합 우승 후 부상선수 속출로 1년 만에 8위로 추락했다.

KIA는 느슨했던 봄 훈련을 폭넓기로 했다. 스프링캠프 2차 훈련지로는 일본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KIA와 LG, 한화, 삼성, kt는 오카나와현에 집결한다.

모든 구단은 오는 21~25일 사이에 출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